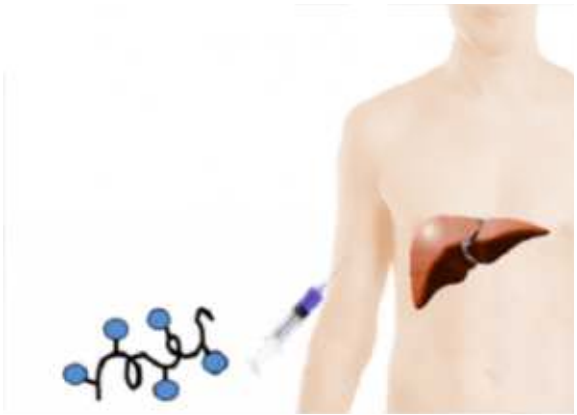
동아사이언스

프린트 취소

C형 간염치료제 年6조원 시장 문 두드린다

포스텍, 치료효능 3배 좋은 간염치료제 기술 이전

동아사이언스 | 기사입력 2014년 02월 18일 13:22 | 최종편집 2014년 02월 18일 18:00



히알루론산에 기반한 C형 간염 치료제가 새로 개발됐다. – 포항공대 제공

포스텍 산학협력단과 신풍제약은 '히알루론산 기반 C형 간염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은 5년간 미래부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지원으로 얻은 연구결과를 단계별 정액기술료 5억 원에 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번에 기술이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는 인구 100명 당 1명 꼴로 추정된다.

주요 증상은 간에 생기는 염증.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스위스 로슈사의 '페가시스', 미국 머크사의 '페그인트론' 같은 '페길화 인터페론'을 레바비린(Ribavirin)이란 제제와 함께 쓰고 있다. 문제는 페길화 인터페론은 체내 투여시 간 이외 다른 장기로도 전달돼 치료효능이 낮고, 반복투여하면 탈모, 빈혈, 폐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

한 교수팀이 만든 히알루론산 기반 치료제는 간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돼 페길화 인터페론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동물실험 결과 현재 쓰이는 치료제보다 효능이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세광 교수는 "본 기술이 상용화 되면 세계적으로 연 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C형 간염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C형 간염치료 외에도 간경화, 간암 등 간 질환에 특화된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donga.com

Copyright © 2013 Dongascience. All rights reserved.